

## 2004년 경제계 신년인사회 연설

존경하는 박용성 회장을 비롯한 각계 지도자와 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한외교사절과 내외 귀빈 여러분,

새해 첫출발을 여러분과 이렇게 융숭한 잔치 자리에서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울러 2004년 새해는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고 여러분과 국민 모두가 환하게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북한 핵 위기, 이라크 전쟁, 사스 공포, 태풍 매미, 그리고 극심한 내수침체와 카드채 문제 등 여러 가지 시련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2천억 달러 가까운 수출 실적을 올리고, 150억 달러가 넘는 무역수지 흑자를 실현했습니다. 1,560억 달러 가까운 외환보유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안했던 금융시장, 그리고 부동산시장도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밝은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저는 새해 국정목표를 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민생안정에 두고 있습니다.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소비의 위축, 빈부격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수출을 이룩한 그 저력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투자에 힘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에서 거둔 여러분의 성공을 우리 경제 전체로 확산시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와 정부도 힘껏 돕겠습니다. 토지 관련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을 비롯해서 투자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법인세율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인센티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직접 투자의 애로사항, 기업환경에 대한 장애사유들을 하나 하나 챙기면서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영상·디자인·소프트웨어 등 지식집약형 산업과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0대 차세대 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술혁신과 인재양성 프로그램도 착실히 추진해 가겠습니다. 동북아 경제중심과 국가균형발전 전략도 일관되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개혁 프로그램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튼튼한 도약의 발판을 다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회 갈등문제가 아주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노사분규가 여러분들이 가장 불안해 하는 요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를 막론하고 불법과 폭력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화와 타협에 힘을 기울여서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아울러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인 여러분께서도 노사간의 신뢰 구축에 발 벗고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들과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인의 노력만으로 기업인들에 대한 신뢰가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 반 기업적 분위기와 문화가 해소되는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정부도 앞서서 기업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도록,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지난해 노사분규가 아주 많았던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연말에 와서 따져 보니까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2002년보다 약 20% 가량 줄어 들었습니다. 올해에는 한층 더 힘을 쏟아서 지난해의 절반 정도로 줄여 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로서는 노사안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모든 힘을 여기에 기울여 나가겠다는 약속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경쟁과 개방의 확산을 통한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의 경쟁을 통해서 실력 있는 기업, 정도를 걷는 기업이 성공하는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를 선진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지금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칠레 FTA가 조속히 비준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국회의 지도자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이 경제정책에 있어서 대외적 신뢰를 얻어 가는 데 FTA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도록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FTA 추진대책반을 정부에 따로 만들어서 앞으로 싱가포르·일본 등 여러 나라와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치·행정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좀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달라질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 경제가 그저 성공이 아니라 신화를 이루어냈다고 한다면 우리 정치도 장족의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해방 이후 50여년 기간에 한국만큼 빠른 속도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우리 국민들이 빠른 변화의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정치 지도자 여러분도 아마 단단한 각오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총선이 있는 동안에는 본시 좀 시끄럽게 느껴집니다. 언론도 집중적으로 총선에서의 공방을 조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총선이 끝나고 새로운 질서가 정착되면 우리 정치가 아주 빠른 속도로 안정되고 4년 동안 대단히 생산적인 정치를 운영해 나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그렇게 꼭 될 것이라는 과학적인 예측을 합니다.

정부도 좀더 잘하겠습니다. 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난 한 해 성과가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로드맵을 준비하는 시기였다고 하면 올해는 착실히 변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도 그저 목표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마찬가지로 변화의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과 변화에 있어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올해 갖추어서 착착 실천하고, 내년 이맘때는 정말 자랑스럽게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변화들 중에서도 결국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효율을 향상시키는 변화에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활발히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변화에 가장 주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로 다시 한번 뚝시다. 올해를 국민의 살림살이가 안정되고, 2만 달러 시대 도약의 튼튼한 기반을 다진 한 해로 기록하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